

2017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연수 결과 보고**



# 목 차

I. 연 수 개 요 .....	2
II. 주 요 일 정 .....	4
III. 방 문 지 및 주 요 내 용 .....	5
① 북 경 방 문 지 .....	5
① 천 안 문 .....	5
② 자 금 성(고 궁 박 물 관) .....	6
③ 중 국 미 술 관 .....	6
④ 왕 부 정 거 리 .....	7
⑤ 이 화 원 .....	8
⑥ 노 신 박 물 관 .....	8
② 심 천 방 문 지 .....	9
① 심 천 비 엔 날 레 박 물 관 .....	9
② 관 산 월 미 술 관 .....	11
③ 경 덕 진 방 문 지 .....	11
① 고 요 민 속 박 람 구 .....	12
④ 향 주 방 문 지 .....	13
① 서 호 .....	14
② 절 강 성 박 물 관 .....	14
③ 향 주 남 송 관 요 박 물 관 .....	15

# 2017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연수 결과보고

## I 연수 개요

### 1. 연수 목적

-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선진지 방문을 통한 실무 역량 배양 및 우수 사례 발굴
- 심천 수목화 비엔날레의 개최 장소를 방문하여 2018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방안 연구

2. 기 간 : 2017. 9. 13.(수) ~ 9. 20.(수) / 7박8일

3. 연수국가 : 중국(북경, 심천, 경덕진, 항주)

### 4. 연수주제

- 궁궐 정원 박물관 조성 배경 및 관리 실태(1조)
- 심천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2조)
- 도자문화박물관 탐방 및 도자 체험(3조)

5. 연수인원 : 15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전라남도	수의6급	고재상	9	곡성군	행정7급	김수미
2	〃	행정6급	박윤수	10	화순군	행정7급	김민영
3	〃	건축6급	심동섭	11	장흥군	행정6급	선승규
4	〃	행정7급	김미선	12	해남군	행정6급	강성국
5	〃	행정7급	오성환	13	무안군	시설7급	임경남
6	목포시	학예연구사	홍미희	14	영광군	행정7급	심정훈
7	여수시	행정6급	조민수	15	신안군	학예연구사	이재근
8	나주시	행정8급	박홍영				

## 6. 주요 방문지

### ○ 공식 방문지

- 심 천 : 심천 비엔날레 미술관(OCT Design Museum)
- 경덕진 : 경덕진 도자문화박람구

### ○ 문화체험

- 북경 : 천안문, 자금성(고궁박물관), 중국미술관, 왕부정 거리, 만리장성, 이화원, 노신고거
- 심천 : 관산월 미술관, 심천 민속촌
- 항주 : 서호, 절강성 박물관, 성황묘, 청하방 옛거리, 항주 도자기 박물관

## 7. 방문국가 일반현황

- 위 치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
- 수 도 북경(베이징)
- 인 구 13억 7930만명(2017년 기준/세계 1위)
- 면 적 9,596,961km<sup>2</sup>(세계 4위)
- G D P 11조 7,953억\$(2017년 기준/세계 2위)
- 공 용 어 중국어(한어)
- 민족구성 한족(91.5%), 기타(8.5%)
- 종 교 도교, 불교(35%), 기독교(3.5%), 이슬람교(1.8%)
- 기 후 중국은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 기후의 특징. 그러나 광대한 영토 탓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 먼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한온대, 온대, 아열대, 열대의 순으로 위도에 따라 기후대가 다르게 나타나며, 남북의 기온 차가 큰 편.
- 사회문화 중국 개혁개방의 최대 성과로 취업, 수입·소비, 사회 의료 보장 및 의료·위생 조건 등 방면에서 점차 중류 수준으로 진행 중  
중국 고대 황하문명은 인류 역사에 있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이며, 유일하게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중간에 단절된 적이 없는 문명  
황하문명의 발전과 번영에 따라 중국 고대 문화가 탄생하였으며, 지금까지 번성

II

주요 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 통	현 지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9. 13.(수)	김 포	북 경	OZ3355	08:50	▷ 북경 도착(09:50)
	북 경		버 스	16:00	▷ 천안문 광장 탐방
			도 보	16:45	▷ 자금성(고궁박물관) 탐방
				17:10	▷ 중국 미술관 탐방
					▷ 왕부정 거리 탐방
제2일 9. 14.(목)	북 경		버 스	17:30	▷ 만리장성 거용관(도보)
			버 스	11:00	▷ 이화원 탐방
제3일 9. 15.(금)	북 경		버 스		▷ 노신고거(노신박물관) 탐방
				15:30	▷ 스키하이 옛거리 탐방
제4일 9. 16.(토)	북 경	심 천	ZH9106		▷ 심천 도착(20:15)
		심 천	버 스	16:45	▷ 심천 비엔날레 박물관 관람
				17:40	▷ 관산월 미술관 관람
					▷ 심천 민속촌 관람
제5일 9. 17.(일)	심 천	항 주	CZ3797	08:50	▷ 항주 도착(13:20)
	항 주	경덕진	버 스	13:20	▷ 경덕진 도착(20:00)
제6일 9. 18.(월)	경덕진		버 스	17:30	▷ 고요민속박물관 관람
					▷ 도자기 시장 방문
제7일 9. 19.(화)	경덕진	항 주			▷ 항주 도착(20:00)
		항 주	버 스		▷ 서호 유람, 육화탑 탐방 등
				15:30	▷ 절강성 박물관 관람
					▷ 성황묘, 청하방 옛거리 탐방
제8일 9. 20.(수)	항 주		버 스	16:45	▷ 항주 남송관요 박물관 관람
	항 주				인 천

## ① 북경(Beijing, 北京) 방문지

- ◆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 2,069만의 인구가 모인 거대도시로 면적은 16,808km<sup>2</sup>이며, 문화와 대외 교류의 중심지이며 국제화된 대도시
- ◆ 수많은 유물과 유적, 고풍스러운 거리, 현대적인 도심지까지 모두 갖춘 도시로, 옛 왕궁과 현 중국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있는 만리장성부터 자금성, 천안문광장까지 중국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음
- ◆ 춘추전국시대 이후 북방을 포함한 전국의 정치·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인재가 흥성하여 숏한 역사적 인물을 배출

## ① 천안문 광장(Tiananmen Square, 天安门广场)

- 북경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천안문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넓이와 함께 최대 수용 인원을 자랑
- “천안문 사태“로 더욱 유명해진 이곳은 중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모택동의 대형 초상화와 펄럭이는 오성홍기로, 북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손꼽히는 장소
- 광장 중앙은 인민 영웅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인 인민 영웅 기념비가 있으며 주위에는 인민대회당, 모주석 기념당, 중국 국가 박물관 등이 있음



천안문 광장 전경

## ② 자금성(Forbidden City) - 고궁박물관(The Palace Museum)

- 전체 면적이 72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로, 약 2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1420년에 완성
- 북경시의 중심에 위치한 명,청 시대의 황실 궁전으로 총 24명의 황제가 거주했으며, 198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
- 건축 당시 무려 700여 개의 건축물과 9,999개의 방이 있었으며, 105만 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이 소장



자금성 전경

## ③ 중국 미술관(The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中国美术馆)

- 중국 최대의 국립 미술관으로 중국의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 현대의 미술작품을 중점으로 전시
- 1963년 전통 중국식 건물로 지어졌으며, 약3만평에 이르는 큰 규모를 20개 전시실로 나눠 예술품을 전시
-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 주석이 직접 쓴 현판이 중국미술관의 간판이며 명·청 시기와 중국 인민정부 시기에 대표하는 약 10만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보유

- 회화, 도예, 조소 등 다양한 미술 분야와 국내 외 유명 예술가의 작품 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있어 미술 교육의 장으로 주목



중국미술관 전경



전시 작품

#### ④ 왕부정 거리(Wangfujing Street, 王府井)

- 왕부정은 ‘왕부(王府:왕족의 저택)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 상질의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
- 실제 이곳은 청 건륭제 시대에 귀족과 고급관료의 저택이 있던 곳이며 우물의 위치가 청동 표식으로 남아 있음
- 한국의 명동이나 압구정 거리와 비슷하여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대를 이어 전통을 살리고 있는 가게도 많이 있어 좋은 품질의 비단이나 차, 골동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



왕부정 거리 모습



특이한 먹거리

### ⑤ 이화원(Summer Palace, 颐和园)

-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황실 정원
- 1988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화원은 서태후의 여름 별장으로, 끝없이 펼쳐진 호수 곤명호는 사람이 만들어 낸 인공 호수이며 그 흙을 쌓아 이화원을 둘러싼 산이 만수산임
- 바다와 인공 호수의 자연 풍광이 정자, 전각, 궁전, 사원, 교각 등의 인공 요소들과 결합하여 매력적이기 그지없는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중국 문화 양식의 깊은 미의식을 반영하는 중국 정원 조경의 철학과 숙련을 한 몸에 보여주고 있음



이화원 인공호수



서태후의 산책로

### ⑥ 노신박물관(魯迅博物館)

- <아Q정전>, <광인일기>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사상가, 혁명가였던 루쉰을 기념하는 박물관
- 루쉰이 직접 설계한 건물에 손수 가꾼 향나무, 서재 등이 있고, 루쉰의 생애, 경력, 작품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

- 또한 그가 수집했던 책, 연구 서적은 물론 자필 원고, 사진, 편지, 실제 사용한 먹과 벼루, 책상, 의자, 옷, 도장 등 생활 소품과 직접 만든 판화집, 제호, 그림, 루쉰의 글이 실린 신문과 잡지 등 전시

## ② 심천(Shenzhen, 深圳) 방문지

- ◆ 심천은 광둥성 남부 주장 동쪽에 있는 도시로 광둥성과 홍콩의 경계를 이루며 주룽반도의 북부를 서류하는 선전강 연안에 위치
- ◆ 인구는 약 1천만 명이 거주하며 평균연령은 30세로 중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신흥 산업도시로 각광
- ◆ 홍콩으로 통하는 육로가 있어서 홍콩을 찾는 여행객의 중간 기착지 이므로, 홍콩으로 들어가는 관광사업도 활발하고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개방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도 높은 편

### ① 심천 비엔날레 박물관(OCT Design Museum) - 공식방문

- 방 문 일 : 2017. 9. 16.(토)
- 위 치 : Haiyuan 2nd Rd, Futian Qu, Shenzhen Shi, Guangdong Sheng, 중국 518053
- 현 황
  - 초현실공간을 테마로 인근 바다로부터 300여미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
  - 2010년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중국관을 디자인했던 Pei-Chu베이징 건축 스튜디오에서 매끄러운 바위에 영감을 얻어 디자인
  - 1층은 방문객들을 위한 로비와 카페가 있고, 2층과 3층은 전시구역으로 구성
- 주요 전시 내용
  - 일본 신화를 배경으로 6D관을 운영하여 생생한 체험 가능
  - 한자 생(生)을 서예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3D형식으로 보여줌

- 일본의 동양화 화법으로 물의 다양한 성질을 3D형식으로 표현, 물이 한줄기씩 흘러내리게 하여 물줄기 모양이 계속 변함

○ 특징 및 시사점

- 약 4천평의 면적에 14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전시관을 일본의 기획자가 기획·제작하였음
- 획일적 전시 공간 조성이 아닌 작품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성있는 전시 공간 구성
-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결합을 통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흥미 유발(LED, VR(가상현실) 등 활용)
-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작품을 관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 전시공간 중 벽이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미디어 아트 등을 설치하고 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을 방영, 전시만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방안 강구 필요



OCT Design Museum 전경



미술관 내 전시관



미디어 아트 전시 및 체험



체험 활동

## ② 관산월 미술관(GuanShanyue Museum, 關山月 美術館)

- 관산월(關山月, GuanShanyue)은 투철한 자연관찰 위에 영남파의 특징인 호쾌한 필치와 청신한 감각을 불어 넣은 현대국화(國畫)의 작풍을 일으켰으며, 현대국화를 대표하는 산수화가의 일인자로 중국 미술가협회 상무이사, 동광동 지부 부주석, 광주미술학원 부원장 등을 역임
- 관산월이 심천시에 800폭의 그림을 기증하여 시에서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지어줌
- 현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중



주요 전시 작가 소개

전시 작품 관람

## ③ 경덕진(Jingdezhen, 景德鎮) 방문지

- ◆ 경덕진은 중국 장시성 북동 지방에 있는 도시로 옛날부터 양질의 도토가 생산되고 수륙 교통이 편리하여 도공들이 모여들어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주민의 대부분은 도자기 생산에 종사
- ◆ 중국 제일의 도자기 생산지로 송(宋)의 경덕 연간(景德年間, 1004~1007)에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도자기에 연호를 새긴 데서 지명이 유래
- ◆ 부근에 도토가 많아 한 때부터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여 남조(南朝)의 진(陳) 때부터 도자기를 본격적으로 생산 송(宋) 때에 생긴 징더전요 [景德鎮窯]에서 나는 도자기는 공품으로 유명, 명(明)의 선덕연간에 어요가 건조되면서 도자기의 생산이 활발

## ① **고요민속박람구(Jingdezhen Ceramics Museum, 古窑民俗博览区) - 공식방문**

○ 방 문 일 : 2017. 9. 18.(월)

○ 위 치 : Jingdezhen City, Jiangxi Province, Porcelain Road, the ancient kiln Road on the 1st

○ 현 황

- 중국 도자기를 테마로 한 박람구로, 장시성에 위치
- 1979년에 기획, 건립되어 1984년 10월 1일 정식으로 개관했고 총 면적은 83만 m<sup>2</sup>로 고요건축군과 청대민속건축군 구역으로 나뉨
- 고요건축군에는 옛날 도자기 생산 작업장을 재현해 놓았으며 도공이 수작업으로 도자기를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청대민속건축군에는 경덕진 도자발전사와 관련된 서예, 그림, 도자 작품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으며 명·청대 건축물을 재현

○ 주요 전시 내용

- 5천여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 1급 문화재는 100여점, 송대 도자 배게인 영청호침, 원대 청화 백자의 정수로 꼽히는 청화 매병, 명대 초기 관요에서 생산된 직경 7.2cm의 선덕청화해수대접 등 관요에서 생산된 작품과 원·청대의 화려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 다수 보유

○ 특징 및 시사점

- 매년 10월 경 경덕진 국제 도자 박람회를 개최함
- 경덕진 4대 도자기 제작 - 청화자, 청화영룡자, 염색유자, 분채자
- 다양한 시대, 다양한 모양의 거대 고요(가마터)들이 현재까지 보존
-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가마터가 존재하며,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음
- 도자기 장인들이 각 단계별로 도자기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할 수 있는 수공제자작방과 제작된 도자기를 전시·판매하는 판매장
- 거리의 가로등까지 온통 도자기로 만들어진 경덕진답게 안내표지판, 화장실, 쓰레기통, 배수로 등 도자 작품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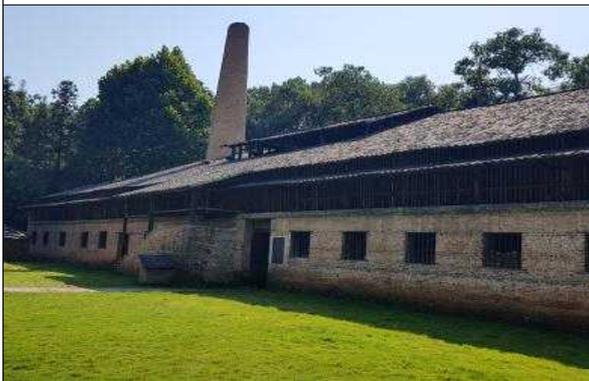
- ❑ 도예가들에 의한 도자예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에 의한 도예품의 폭넓은 향유 방안 강구
- ❑ 강진과 같은 전남의 도자기 문화유산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
- ❑ 전남의 도예생산단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자체험과 축제를 연계하여 지역별 도자 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고요민속박물관구 입구



도자기 제작 과정 시연



옛 거대 고요(가마터)



도자기 제작 과정 설명

#### 4] 항주(Hangzhou, 杭州) 방문지

- ◆ 저장성의 성도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 ◆ 녹차의 최고급품으로 알려진 용정차의 산지이며, 전통적인 직물공업을 바탕으로 근대적 설비에 의한 견·면직포·염색 등의 공업이 발달
- ◆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가 자리했던 곳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도시

## ① 서호[西湖, West Lake]

- 원래 전당강(錢塘江)과 서로 연결된 해안의 포구였는데, 진흙·모래로 막혀 육지의 인공호수로 조성된 것
- 전체 면적은 6.3km<sup>2</sup>, 둘레는 15km, 길이가 동서 2.8km, 남북 3.3km, 평균 수심은 1.5m, 최대 수심은 2.8m
- 남송 왕조 이래 항주가 성도가 된 후 서호 부근에는 관료와 부호가 운집했고, 그들의 정치적 배경이 되어 많은 문인과 묵객들의 소재가 되어 시와 그림으로 옮겨짐



## ② 절강성 박물관[Zhejiang Provincial Museum, 浙江省博物館]

- 저장성의 유일한 성급 박물관이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며, 1929년 개장하여 1993년 확장 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 중국의 대표적인 신석기문화인 양저문화의 유물부터 명,청 시대의 예술작품까지 10만점 가량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풍요'로 대변되는 강남의 문화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
- 외부의 문란각(文瀾閣)은 청나라 건륭 47년 사고전서의 보관을 위해 만든 7대 장서각 중의 하나이며 강남 3각 중 유일하게 남은 것



절강성 박물관 전시 작품

### ③ 항주 남송관요 박물관(杭州南宋官窑博物馆)

- 항주의 수많은 문화고적지 중 하나인 유명한 도자기생산 유적지로 송대 5대 관요 중 하나
- 부지면적 43000㎡, 건축면적 10000㎡로, 1992년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고, 2002년 증축하여 진열도 새롭게 함
- 남송관요의 풍격과 특색을 전면으로 전시하였고 관요의 역사, 공예 및 미학가치를 돌출하게 하였음
- 남송관요와 남송궁전문화 및 사회 습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



전시 작품 설명



전시 작품